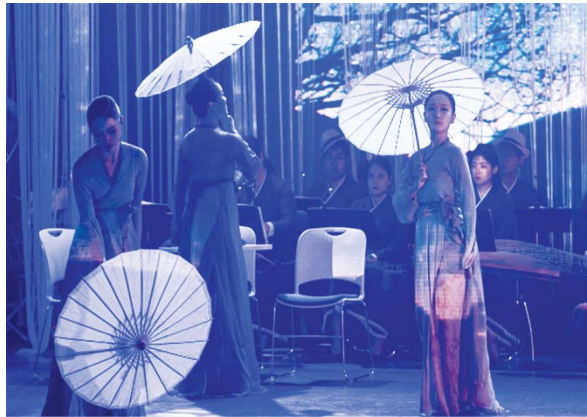


문화도시 익산 조성 공감대 형성 주력

‘행정의 역할’ 주제로
시, 전문가 특강 실시
“협력·소통 바탕 되어야”

익산시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부서 간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2일 국가무형문화재통합전수교육관에서 문화도시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관련 부서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문화도시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는 유희숙 부시장과 관련 국장 및 부서장, 담당 계장 등 15개 부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도시의 이해와 문화도시를 위한 행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시는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올해부터 부서 간 행정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역할 분담 및 협력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특강을 개최하게 됐다. 강연자로 초빙된 차재근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은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포항을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이끌었던 경험

과 노하우를 풀어내며 문화도시의 지속성과 확장을 위한 시민주도 거버넌스와 행정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유희숙 부시장은 “문화도시시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문화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시 발전의 새로운 비전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행정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이 바탕이 돼야 하는 만큼 조직 내 활발한 정보 공유와 협업 활성화로 행정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선정과 함께 문화도시를 준비해왔으며 올 한해 문화도시 가치 공유와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한 시민 기획강연 및 토론, 삼삼오오 이야기주간, 삼삼오오 우리동네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문화도시 간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익산문화도시 포럼’을 올 한해 꾸준히 개최하는 등 문화도시 기반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오고 있다. 현재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법정 문화도시에 선정을 위해 지난 21일 현장실사가 마무리됐고 12월 발표될 최종결과를 준비하며 예비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장왕원 기자



예술단체인 아트컴퍼니 예기가 오늘날 새로운 문화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뉴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근대시대의 춤과 음악을 통해 기성세대에는 추억의 시간을,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장르에 대한 예술적 신선함을 제공하는 스토리가 있는 공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아트컴퍼니 예기 제공>

춤·음악으로 표현하는 근대 청년 이야기

아트컴퍼니 예기 ‘청춘벨딩’ 4일 익산서 개최
근대 역사 상황극·관객 참여 프로그램 등도 마련

예술단체인 아트컴퍼니 예기가 오늘날 새로운 문화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뉴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근대시대의 춤과 음악을 통해 기성세대에는 추억의 시간을,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장르에 대한 예술적 신선함을 제공하는 스토리가 있는 공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트컴퍼니 예기의 ‘청춘벨딩’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대국민

문화향유 증진사업 ‘2020 신나는 예술여행’의 일환으로 4일 오전 10시 익산시 부송동 송백마을아파트(관리업체 사량주택) 102동과 105동 사이에서 열린다. 정의갑, 김국찬, 이승희, 최경식, 박성희, 하윤희, 김봉관, 정혜원, 차다솜, 권형성, 박세하 등이 출연하는 청춘벨딩은 라이브 음악연주와 배우들의 맛깔스런 연기가 더해진 다채로운

‘한국 춤’을 선보이며, 근대시대 청년들의 이야기가 있는 춤과 음악공연, 배우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근대시대 역사 상황극, 관객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아트컴퍼니 예기는 한국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 간 협업을 통해 공연 및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전문예술단체이다. 특히, 대중이 공감하는 한국 춤과 전통예술의 대중화, 명품화, 세계화를 지향하며 폭넓은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익산=장왕원 기자

베토벤 탄생 250주년 ‘시민들과 함께’

‘베토벤의 어제와 오늘’ 5일 군산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운명교향곡’을 오프닝으로 필작 ‘환희의 송가’까지 선사

군산시립합창단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는 연주회를 오는 5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103회 정기 연주회 ‘베토벤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군산시민들과 함께 한다. 이번 연주는 군산시립합창단 제8대 상임 지휘자 김영진의 지휘로 수준 높은 클래식 이외에도 대중적인 다양한 장르로 기획됐다.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 작품으로 ‘운명교향곡’을 오프닝으로 시작해, ‘장엄미사(Gloria, Sanctus)’, ‘피델리오 합창’, ‘엘리제를 위하여’ 마지막 베토벤의 평생 필작이라는 칭송을 듣는 ‘환희의 송가’까지 베토벤이 주는 진한 감동적인 곡을 선사할 예정이다. 두 번째 순서로는 국내 최고의 성악가 (테너 류정필)의 천상의 목소리로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옛 도시 그라나다의 풍물과 춤추는 아가씨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라나다(Granada)’와 땀과 열정을 담은 영화 여인의 향기 중 ‘Por una Cabeza’의 환상적인 연주를 감상하게 된다.



마지막 순서로는 ‘다함께 즐거운 노래’로 전통 가곡부터 대중 음악까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음악 색깔을 선보이게 될 것이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공연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게 희망과 감동 그리고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게 될 것이며, 특히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평생 고통스러운 운명에 맞서 초인적인 투쟁의 삶을 살았던 그의 초월적인 음악을 통해 이 시대에 건네는 위로의 메시지를 경쾌하게 되는 특별한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주교대 ‘전국 초·중등교사 국악경연’ 성료

‘제19회 전주교대 전국 초·중등교사 국악경연대회’가 지난달 31일 음악관에서 열렸다. 전주교육대학교가 주최하고 국립민속국악원, 전주시립국악단, 한국국악교육회가 후원하는 이 대회는 전국 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유일한 국악경연대회로, 국악교육의 활성화와 유능한 국악교육전문가의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교사개인부문으로 실시된 올해 대회에서는 충남, 부산, 경북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온 초·중등 교사 8명이 경연을 벌였으며, 충남 금산 중앙초등학교 이기우 교사가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장과 상금, 교수환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악기장이 제작한 가야금이 수여됐다.



김우영 총장은 “참가자들이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는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며, “우리가 락의 맛과 멋을 널리 알리고, 국악의 자연 화대와 우수한 국악 인재를 발굴하는 국악경연대회가 계속해서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익산문화원 ‘달려라! 청춘열차’ 버스킹 오늘 마무리 공연

어르신들의 문화프로그램인 ‘달려라! 청춘열차’ 5차 공연이 3일 오전 10시 30분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렸다.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며 익산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 증진과 아울러 버스킹을 통해 공연무대에 대한 자신감

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앞서 지난 8월 14일 1차 공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4차의 공연이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 등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5차 공연이 올해의 마지막 공연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쓰기, 사회적거리 지키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됐다. /익산=장왕원 기자

그림으로 기록하는 어반스케치 체험 ‘나의 남원’

시, 남원예촌·구도심 등과 함께
주변의 이야기·추억 담아
전문작가와 함께 프로그램 진행
컬러링그림엽서 등으로 활용키로

남원시가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매주 화·수요일 남원의 모습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어반스케치 체험프로그램 ‘그리다, 나의 남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원다움관이 위치한 고생으로부터 관한투원, 남원예촌, 구도심 등을 전문작가와 함께 거닐며 풍경과 함께 주변의 이야기와 추억을 그림으로 담아내는 것으로, 총 4회에 걸쳐 15명의 참가자들이 2명의 전문작가와 함께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전문작가로부터 드로잉 이론 및 기초실습(1회차)을 받고 현장실습(2·3회차) 및 채색(4회차)을 통해 사라질지 모르는 남원 풍경을 그림 기록으로 남기게 되며, 이를 통해 알록달록한 가을 풍경 아래 펼쳐진 관한투원 및 남원예촌을 비롯해 남원의 골목길, 옛 건물 등을 자신의 추억을 담아 그리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쳤던 몸과 마음을 치유하게 되고, 결과물은 남원



남원시가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매주 화·수요일 남원의 모습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어반스케치 체험 프로그램 ‘그리다, 나의 남원’을 진행하고 있다.

다움관에 상설 전시하고, 컬러링그림엽서 및 에코백 등의 콘텐츠 상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남원다움관은 관한투원, 남원예촌 등 남원의 주요 관광지와 근접해 있어 연계관광이 가능

한 곳으로, 남원 근현대기록 전시 및 각종 체험콘텐츠를 갖추고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한복문화교육 공모사업 선정

국비 4000만원 지원받아

남원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가 주관하는 2020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남원시는 2021년 4월까지 남원예촌과 함께하는 나는 한복이고 달린다’는 초중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희망학교를 직접 찾아가 한복 문화와 자연과학, 인성교육, 한복입기 등의 내용으로 학년별 맞춤 수업을 진행하고, 한복을 입고 남원예촌 인근 관광지를 투어하면서 쿠키를 푸는 현장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복교육 뿐만 아니라 한복을 입고 관한투와 남원예촌을 누비며 미션을 통해 마패를 획득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해 단순 교육프로그램을 벗어난 활동적인 현장학습체로도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마한박물관 토기체험 14일 진행

익산 왕도역사관(관장 박귀순)에서 지역 거주 초등학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14일 ‘조물조를 흙으로 빚어내는 신나는 토기체험’을 진행한다. ‘옛날 사람들은 그릇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기체험은 선사시대 명품 그릇 만들기, 노천가마에서 토기 굽기, 선사시대 음식 조리하기 체험으로 이루어진다. 체험은 각 시대마다 다른 그릇 모양과 쓰임새에 대해 알아본 후 자신만의 개성과 멋을 담은 그릇을 만들고 이외에 만든 노천가마에 불을 피워 토기를 굽는다. 이렇게 구워진 토기를 이용하여 부뚜막에 불을 지피 조밥도 짓고 구마도 구워보는 체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마한관 토기체험은 노천가마를 활용하여 토기를 소성한다. 이번 체험을 통해 선사시대의 대표유물이자 마한의 대표유물인 토기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옛 사람들의 생활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4일 10시부터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한다. /익산=장왕원 기자